





**PUBLIC SERVICE  
POSTER DESIGN**  
THE 39 DDUIM EXHIBITION

1st	1980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11th	1990	[남과북, 자유] 대전 현대화랑 동승동 토탈 갤러리	21st	2000	[이어줄]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	31st	2010	[환경살리기 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2nd	1981	대전시민회관	12th	1991	[사랑, 돌출] 대전문화원 동승동 토탈 갤러리	22nd	2001	[Event 행사 포스터전] 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32nd	2011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rd	1982	대전시민회관	13th	1992	[환경]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23nd	2002	[책홍보 포스터전] 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33rd	2012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4th	1983	대전시민회관	14th	1993	[Green] 대전 현대화랑	24th	2003	[ART 포스터전] 대전 현대갤러리	34th	2013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5th	1984	[동물을 주제로 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디자인 포장센터	15th	1994	[Open, 열림] 대전 교보아케이드	25th	2004	[Object전] 대전 대덕 문화센터 5층 갤러리	35th	2014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6th	1985	[카렌다전] 대전시민회관 디자인 포장센터	16th	1995	[세계화] 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26th	2005	[Emotion] 대전 대덕 문화센터 5층 갤러리	36th	2015	[공익포스터전] 대전 KBS 갤러리
7th	1986	[무대디자인 포스터전] 대전시민회관 명동 유네스코 회관	17th	1996	[96' s Environment] 대전 교보아케이드	27th	2006	[With전] 연정국악 문화관	37th	2016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8th	1987	[책을 주제로 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18th	1997	[과소비] 대전 삼성생명전시관	28th	2007	[공익광고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8th	2017	[공익포스터전]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시실
9th	1988	[충청도 풍자전] 명동 금강 르느와르 전시관	19th	1998	[Fighting Korea] 대전시민회관	29th	2008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39th	2018	[공익포스터전] 목원대학교 미술관 <b>NOW!</b>
10th	1989	[똥] 명동시민회관 명동 금강 르느와르 전시관	20th	1999	[Trash] 대전시민회관	30th	2009	[공익포스터전] 한국 광고 문화회관 대전시청 1층 전시실			



똥은 1980년 창립전 이래로 현재 39회를 맞이하는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 학과의 전통있는 정기전입니다.  
3,4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을 한차원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익 (公益)

일반적, 추상적으로는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의 이익을 뜻함.

공공광고는 바로 이러한 공익을 추구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일련의 캠페인 활동, 즉 ‘전쟁’에 국한되어 있던 공익광고는 현대에 들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국가’단위에서 한 차원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부조리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된 것 입니다.  
광고는 가장 현대적인 동시에 가장 설득력이 뛰어난 수단으로 사회 불안이 만연한 시대, 우리는 광고를 통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익광고’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공익광고를 넘어 보다 참신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제 39회 뽀 전시회는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포스터 매체에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인사말

영원히 차가울 것만 같던 추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지나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각디자인 학과의 자랑인 뽀 그래픽 전시회를 76명의 3,4학년 학우들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39회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뽀이라는 탑을 쌓아 올리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 밟았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던가요?  
뽀이라는 변하지 않는 전통 아래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트렌드를 맞추어 공익광고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꽃이 지난 추운 세월들을 이겨 내고 마침내 아름답게 피듯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 노력 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부족한 저희를 위해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학교에는 없지만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졸업 선배님들,  
옆에서 준비를 응원해주는 많은 후배님들,  
이분들 덕분에 우리 뽀이라는 꽃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저를 믿고 따라와주며 끝까지 힘내서 이 전시회를 함께 해준 3,4학년 학우분들 감사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 제 39회 뽀장 박성식

**Works**<sup>76</sup>**th**  
Public Service A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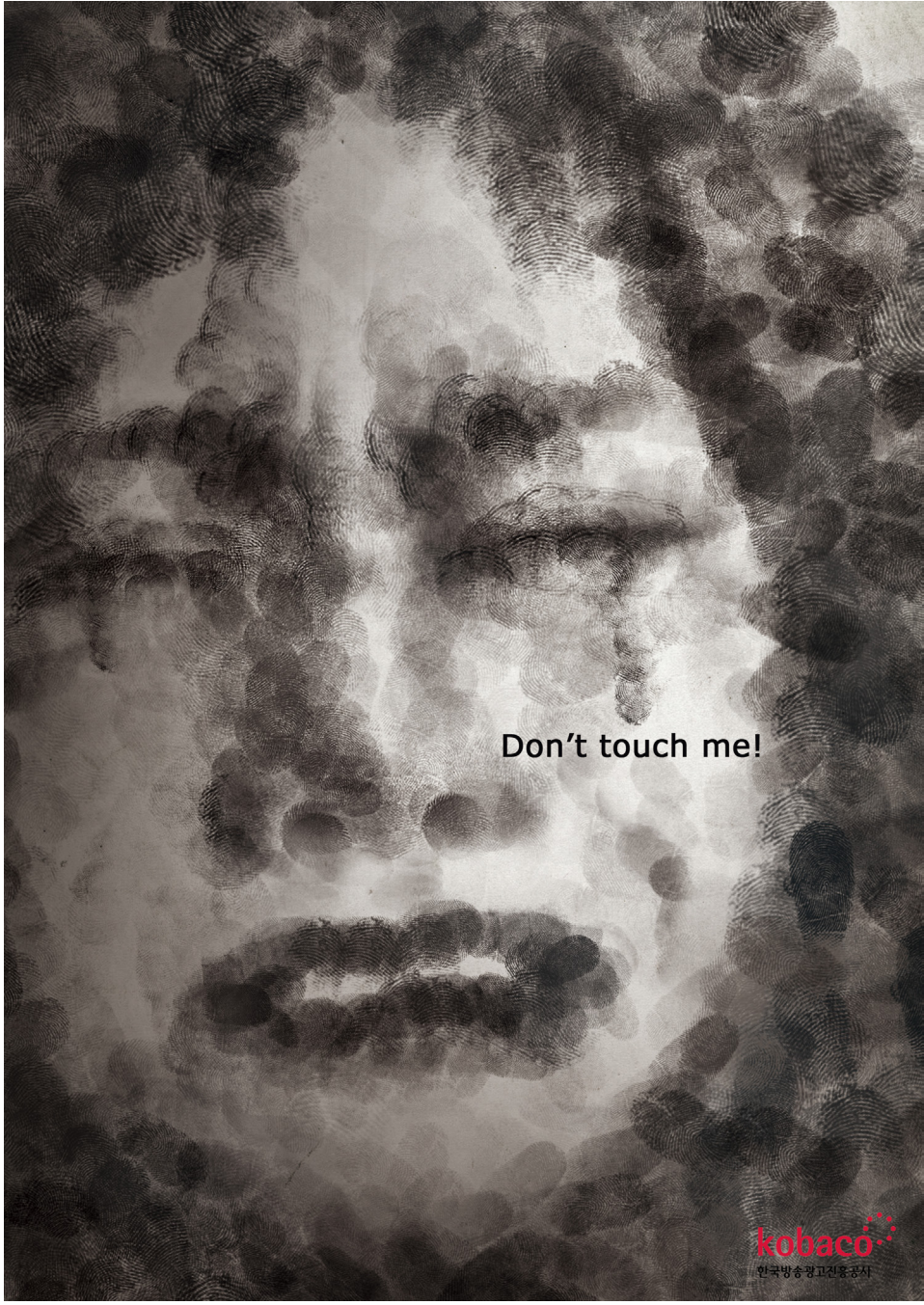




















When nature dies, Humans are also dead. kobaco



물카,역지사지?

찍히고 찍히는 물카,당신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돈이면 다 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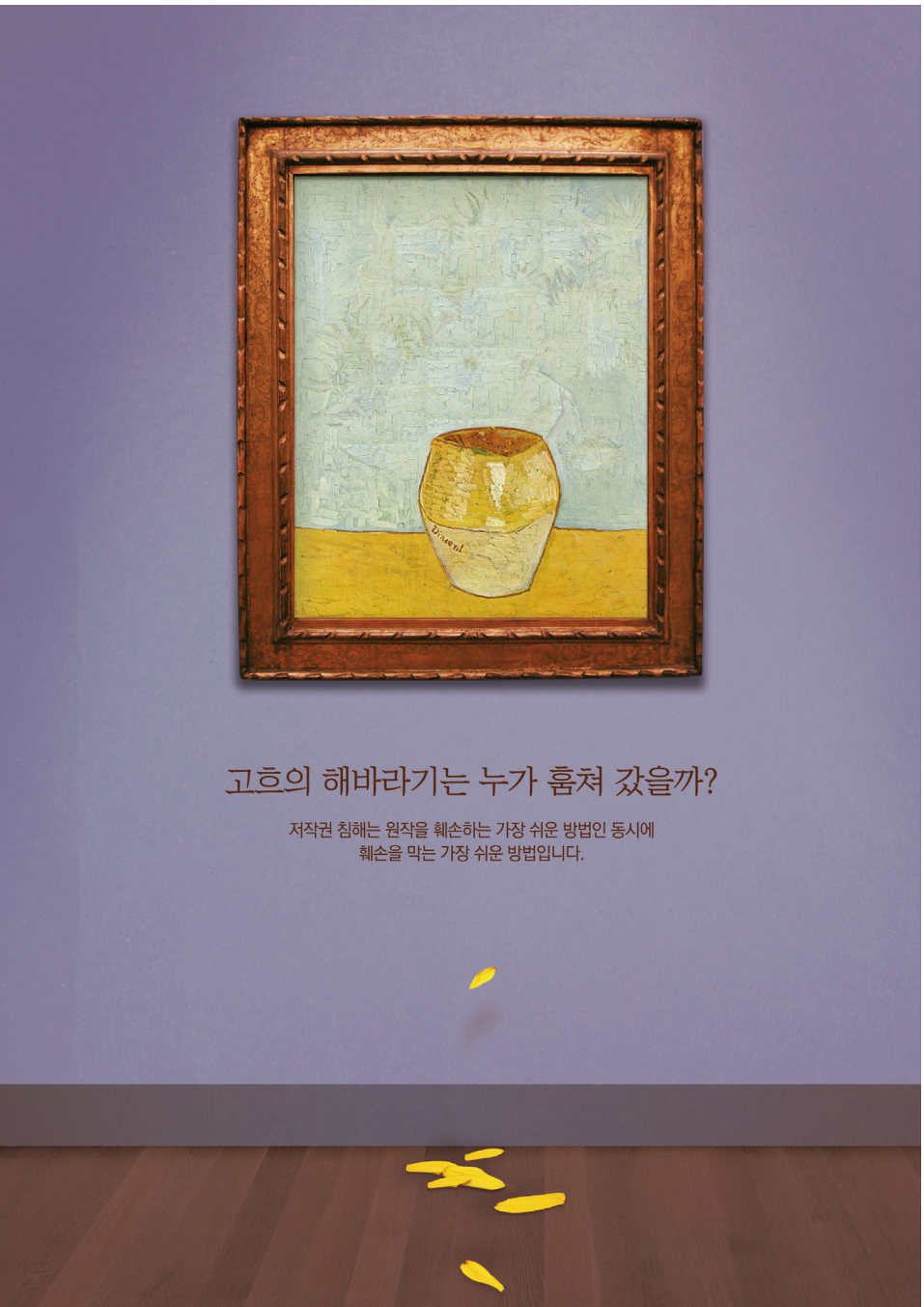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벌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이 없어져야 하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행위도 사라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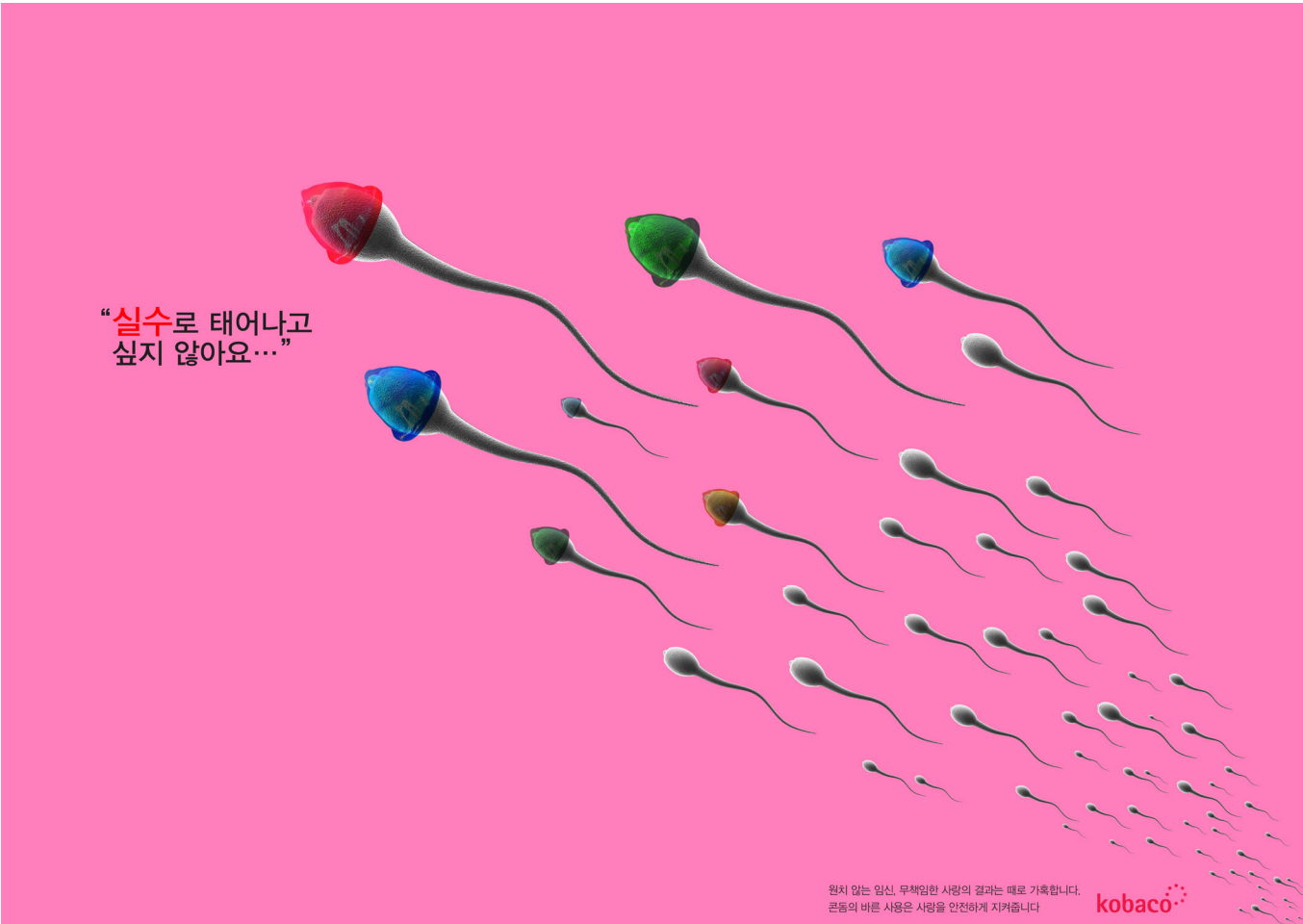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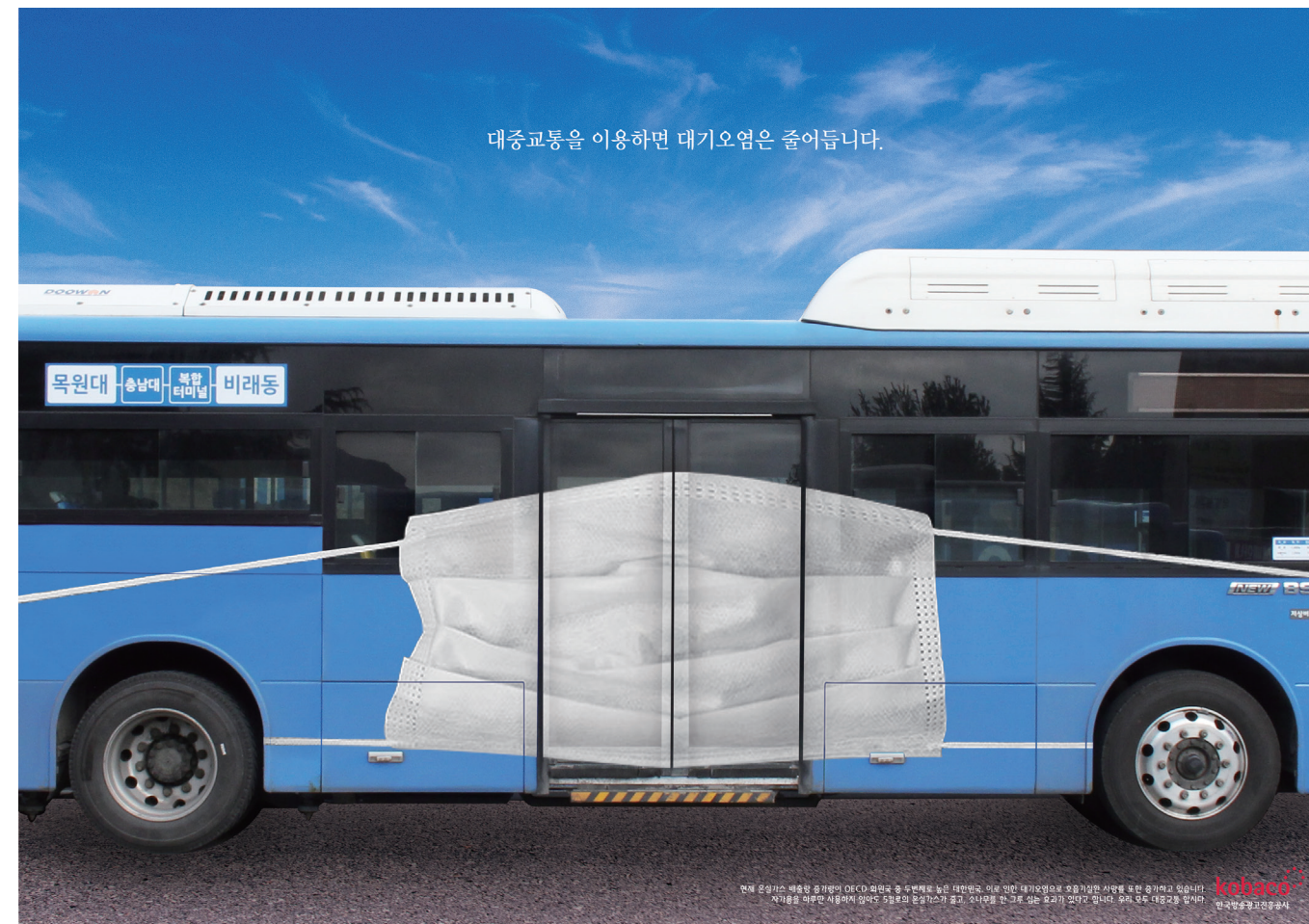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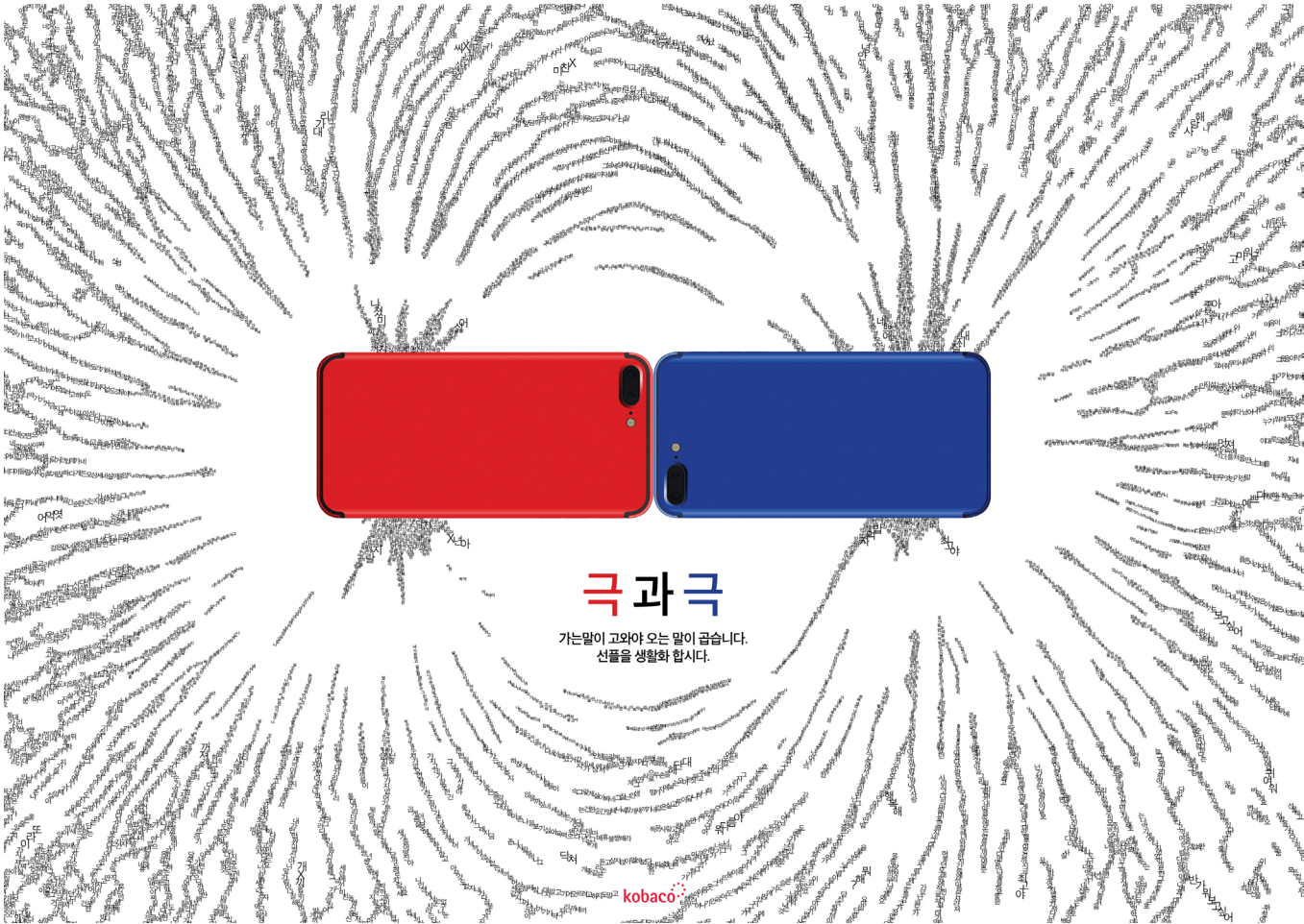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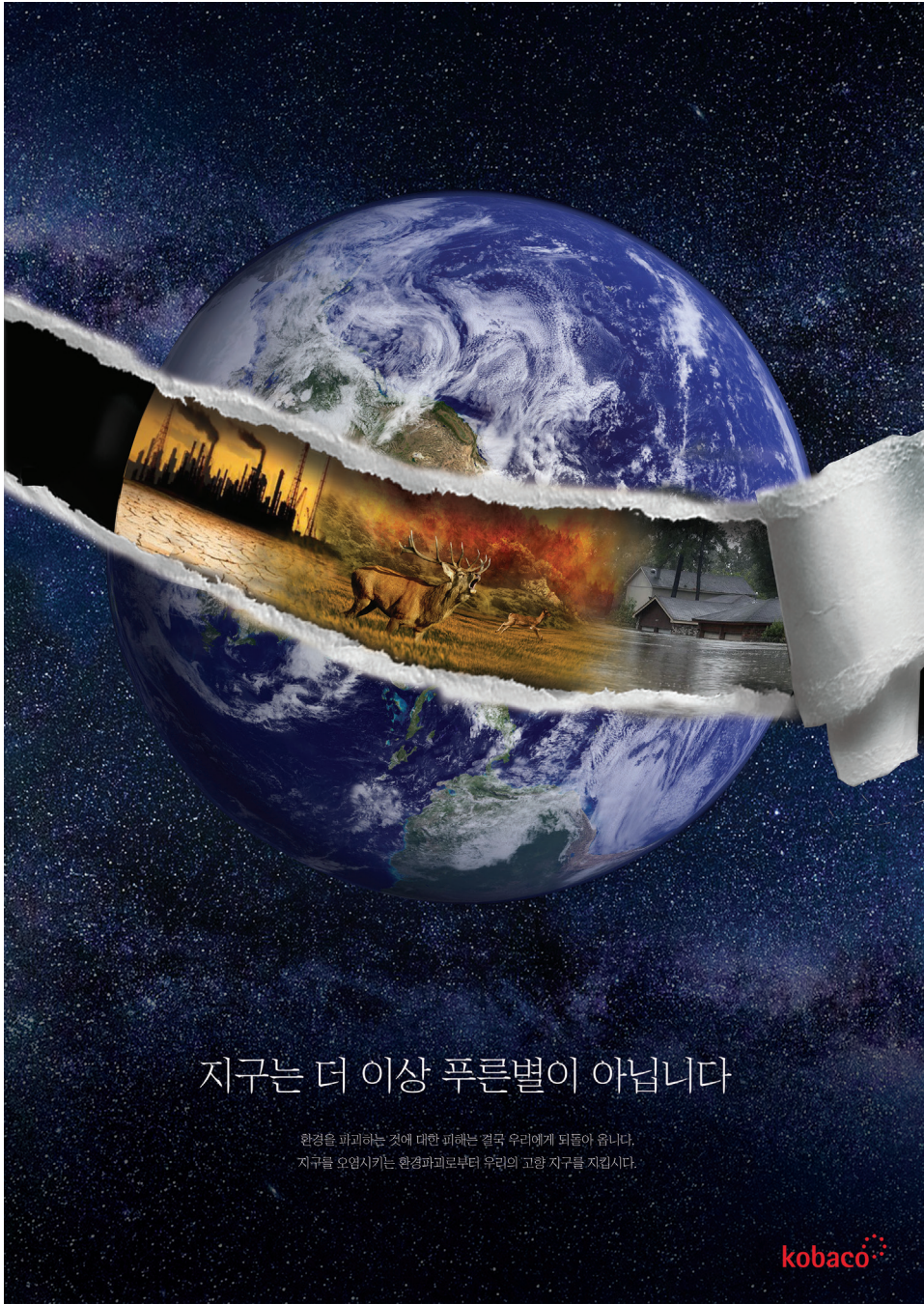














무심코 지나친 당신의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자살행위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도박, 밥 먹듯이 하고 계십니까?

가족과의 식사 대신,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박중독을 멈추면 가족의 행복이 찾아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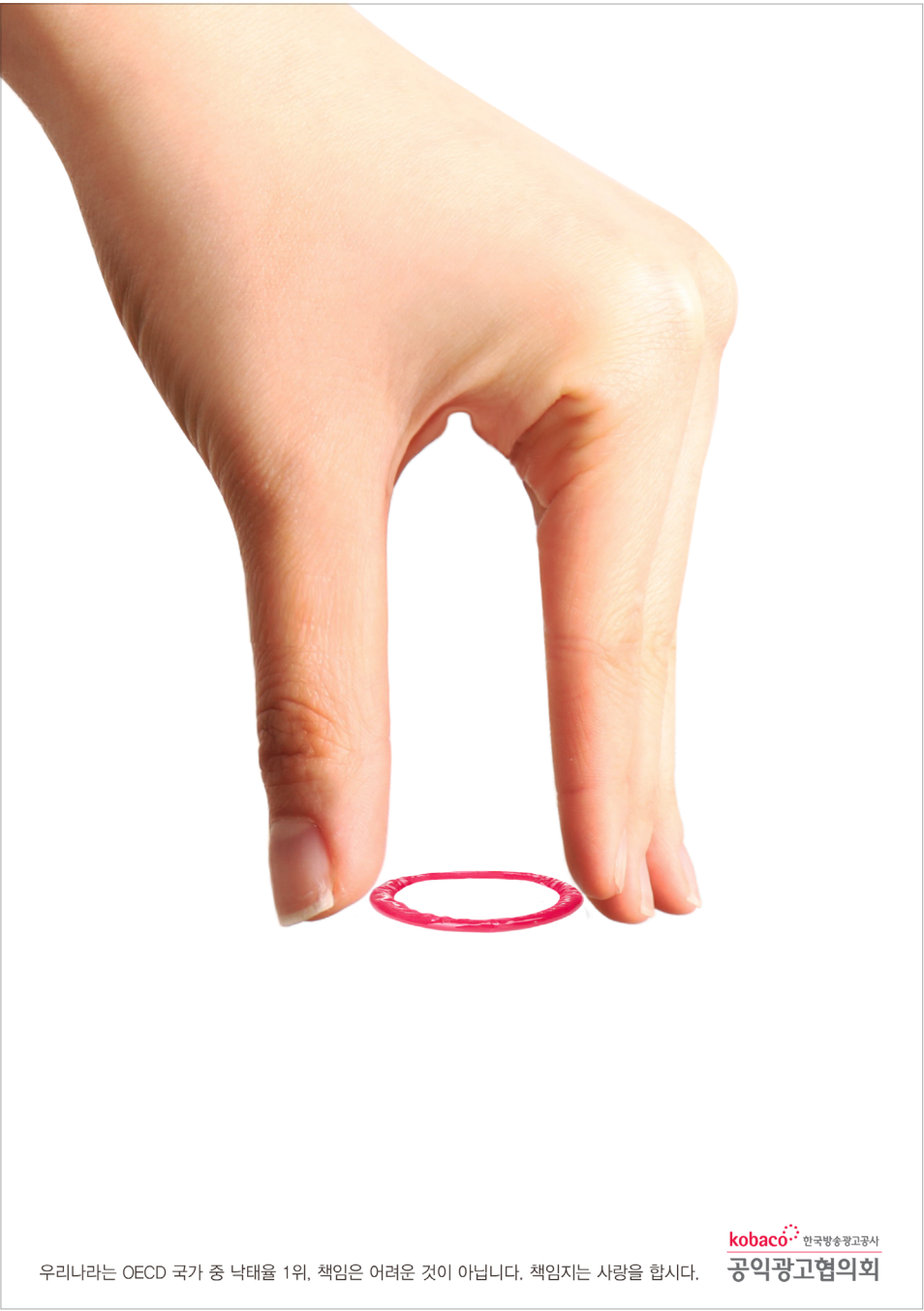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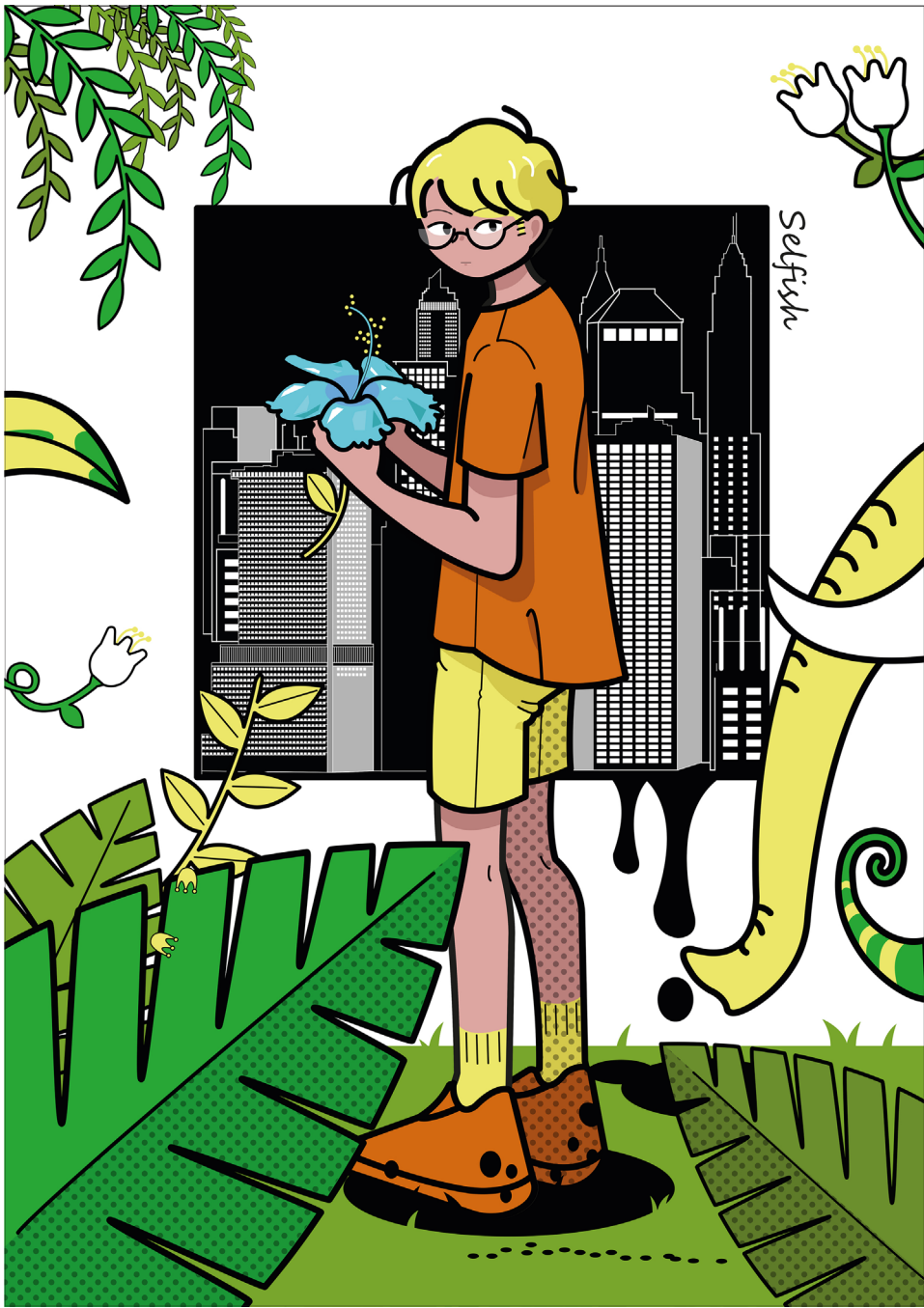
부모는 귀엽다지만 아이는 상처받습니다

SNS에 무심코 올린 자녀의 개인정보들이 단서가 되어 내 아이가 그대로 타격을 입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유튜브 인기스타, SNS 인기스타가 되는 아이들  
우리 아이를 인기스타로 만들어주는 것 보다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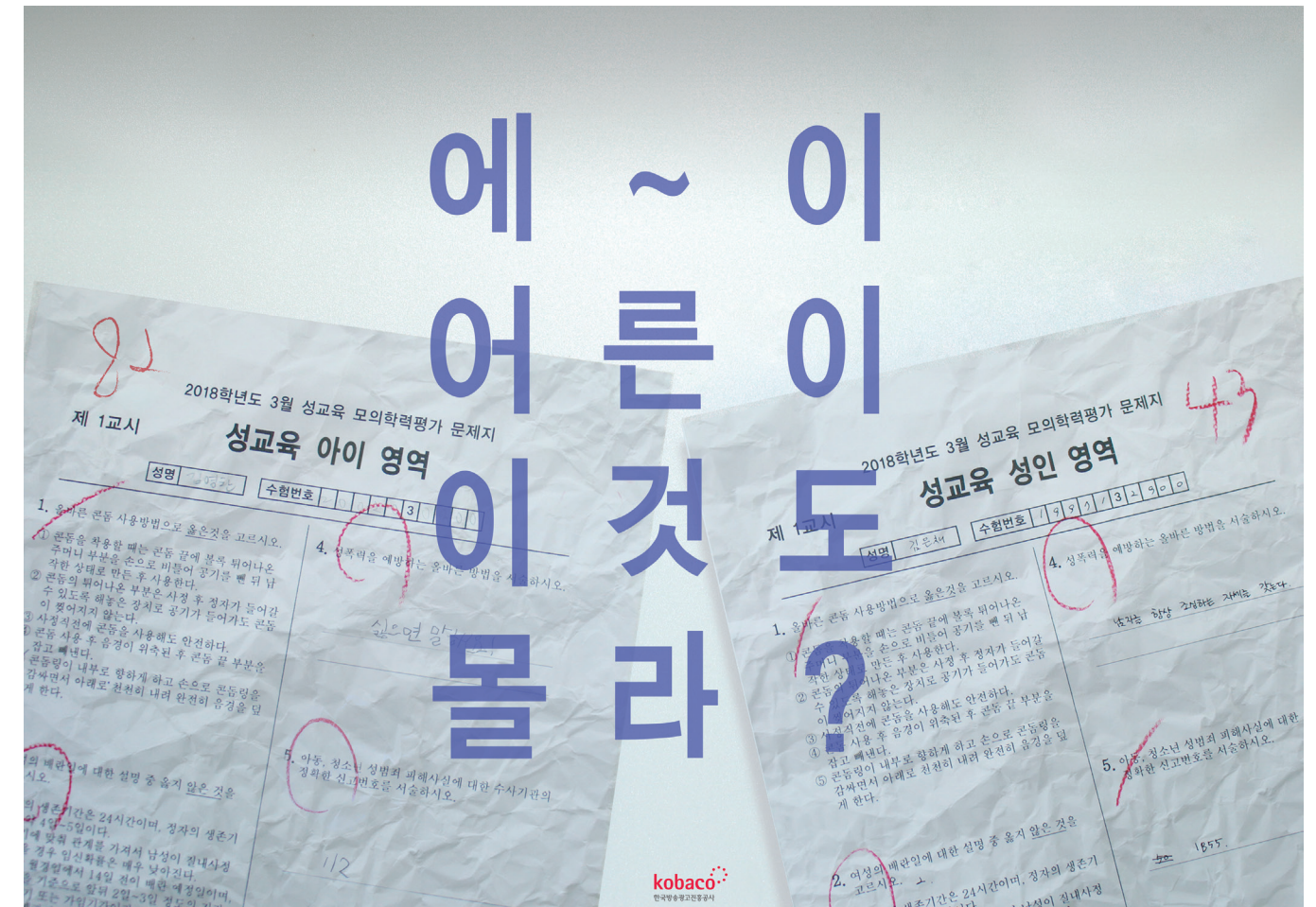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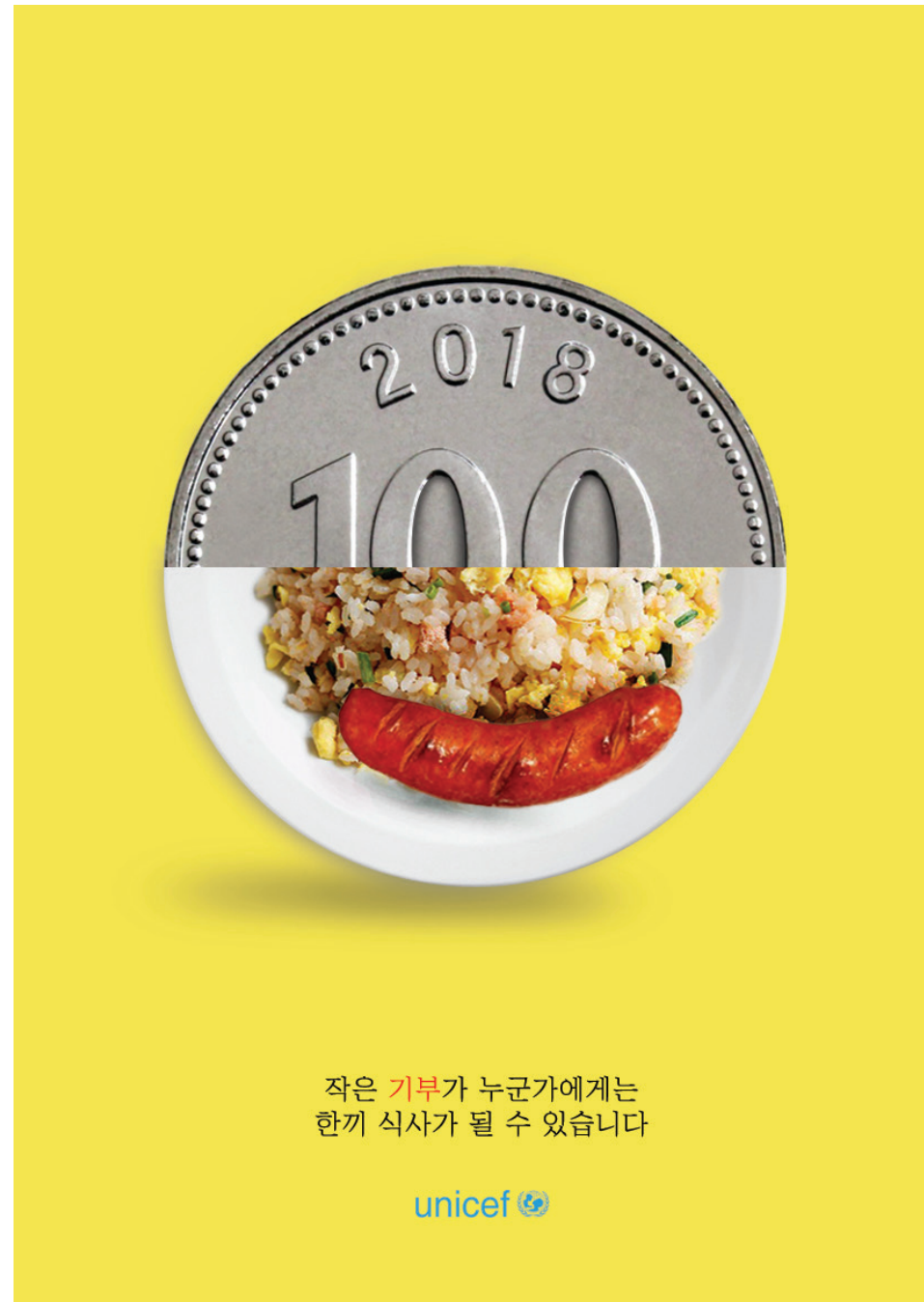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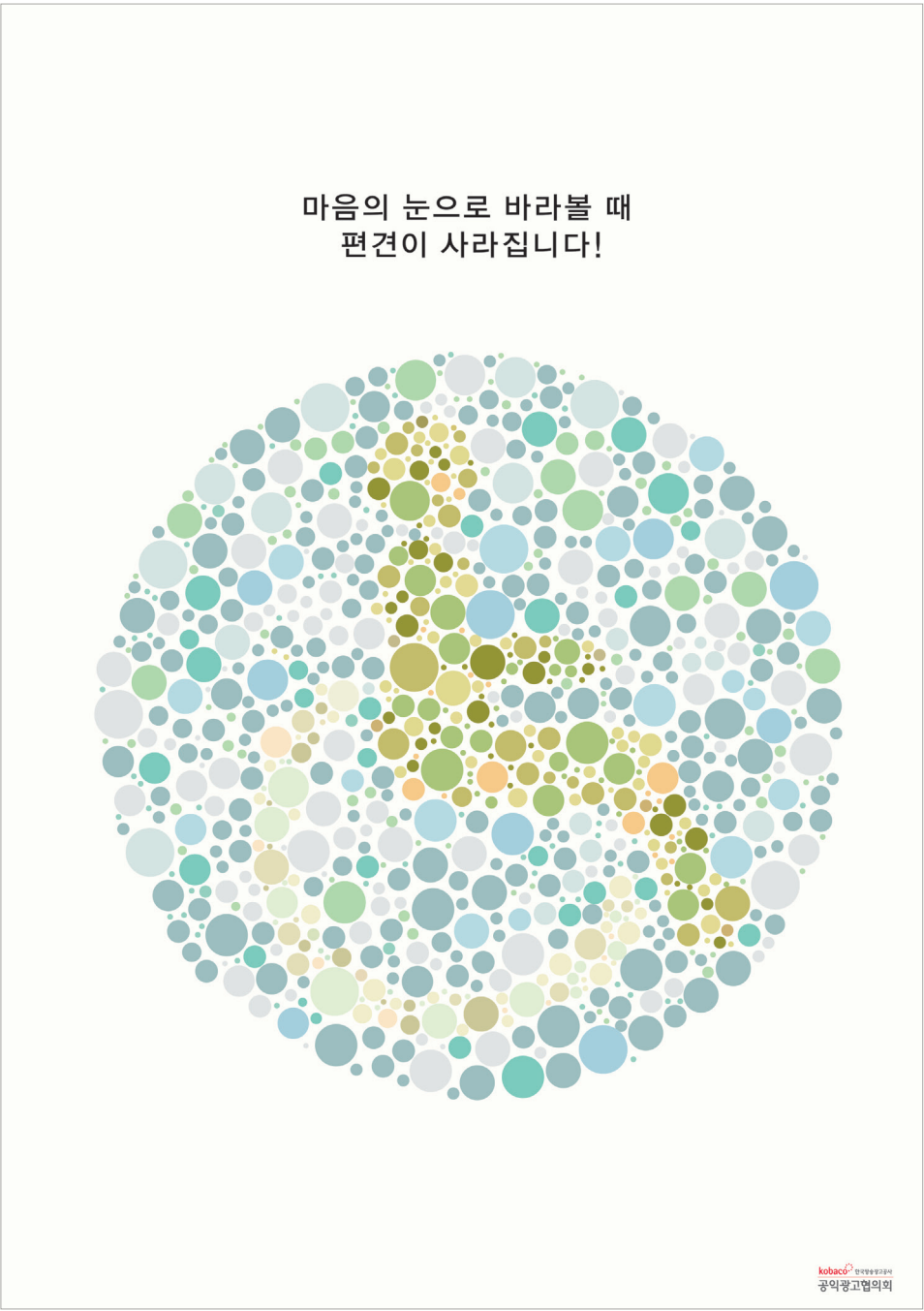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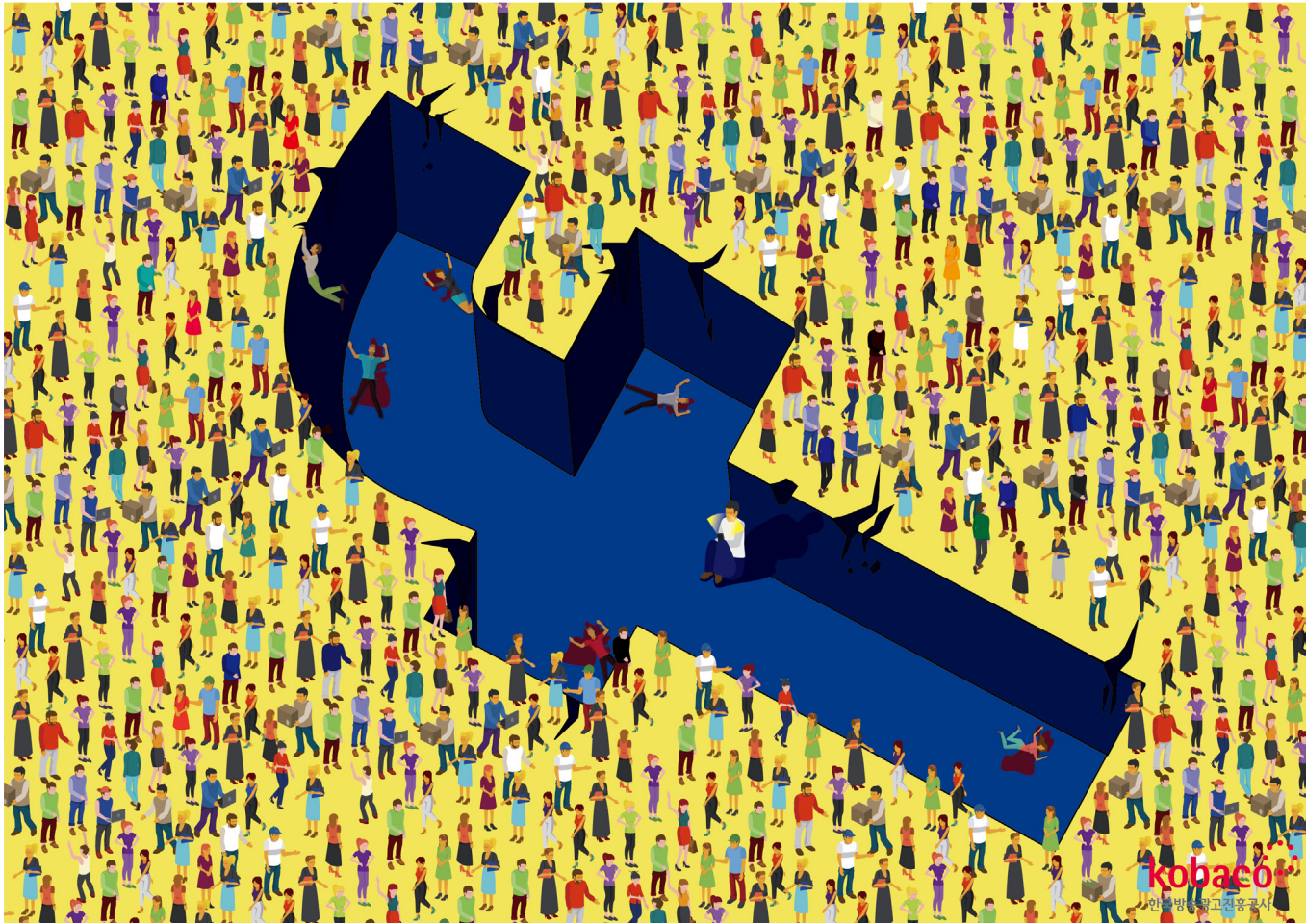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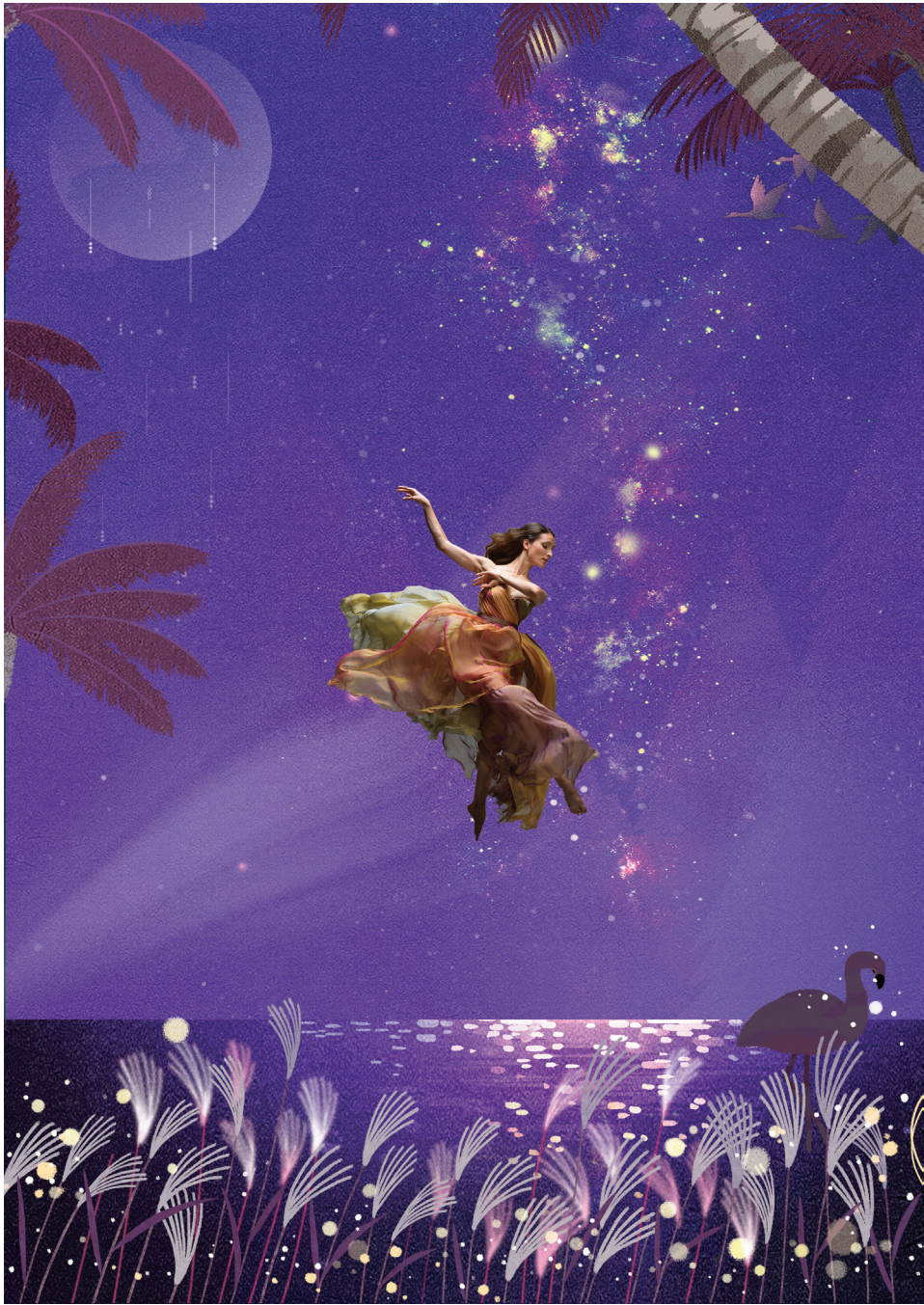
















# Profile 39th

Students Adress Book

